

17년 논란 접고... 광주 5개구 지나는 2호선 '첫 삽'

(지하철)

오늘 기공식, 1단계 건설공사 시작
저심도 경전철, 총연장 41.8km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1곳 건설
환승역은 남광주역·상무역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간 17년의 논란 끝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마침내 5일 첫 삽을 뜬다.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들이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선택 결정됐다.

시는 광주 시청역이 들어설 야외음악당에서 오는 5일 기공식을 열고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순환선으로 광주 5개 자치구를 모두 경유해 역세권 개발은 물론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광주 전역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구축됐다.

이번 기공식에는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다.

2호선 건설 사업은 모두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된다.

1단계가 2023년, 2단계가 2024년에 완공돼 순환선으로 운영된다.

3단계는 지선 개념으로 백운광장~효천역을 연결하는 4.84km 구간이다.

지하철 전체 구간 중 4.2km는 지상 노면으로, 37.7km는 지하로 건설되는 혼합형이다.

지하 구간 중 28.2km는 평균 깊이가 4.3m, 나머지는 1~1.5m 깊이의 지하 박스형으로 건설된다.

보통 지하 깊이 20m에서 운행하던 기존의 도시철도와 비교하면 깊이가 매우 얕다는 지적이지만 건설비,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저심도 건설이다.

더불어 땅속에 철도가 달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터널 벽체를 이 공간에 집어넣는 형태로 건설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승객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도입했다.

기존의 도시철도는 역 출입구에서 승강장 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길어 지상에서 평면 승차가 가능한 버스에 비해 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저심도 경전철은 승·하차와 탑승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선으로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

역~전남대~첨단지구를 지나 다시 시청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41.8km다.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되며 사업비는 총 2조1천761억원(국비 60%·지방비 40%)이 투입된다.

2023년 개통 예정인 1단계 구간은 시청에서 광주역을 잇는 17.06km다.

2단계는 광주역에서 첨단지구~시청을 연결하는 20km 구간이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이어 1단계와 2단계가 연결돼 순환선으로 운영되며 남광주역과 상무역이 환승역이다.

2025년 개통 예정인 3단계는 지선 개념으로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을 연결하는 4.84km 구간이다.

3단계의 행정절차는 내년에 시작되며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전체 구간 중 4.2km는 지상 노면으로, 37.7km는 지하로 건설되는 혼합형으로 지하 구간 중 28.2km는 평균 깊이가 4.3m, 나머지 9.5km는 1~1.5m 깊이의 지하 박스형으로 건설되며 지하에 사각형 틀을 만들어 도시철도가 달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로 건설된다.

/광주=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오동통 하동 햇밤의 계절이 왔어요”

하동읍·적량·청암면서 출하 시작



지리산 하동 햇밤

청정 지리산 일원의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고소한 하동 햇밤이 본격 출하하기 시작했다.

하동군은 지난 2일 황천·양보면을 시작으로 밤 주산지인 하동읍·적량·청암면 일원에서 햇밤을 수확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하동군에서는 1,110여농가가 청정 지리산 일원 2,200ha에서 밤을 재배해 연간 3,300t의 수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군은 단기임산물 가운데 소득이 가장 높은 알밤이 본격 출하함에 따라 밤 수매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향후 수매 계획과 수출,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하동 밤은 밤나무 생육상황이 작년보다 양호하고 착과수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조사돼 현재까지

의 착과와 낙과상황을 고려할 때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군은 올해 수매물량을 작년 대비 5% 상승된 3,500t으로 잡고 관내 산림조합과 6개 농협에서 수매하는 한편, 생산농가와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생산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군은 노령화 밤나무 단지의 품종 개량, 폐원 밤나무단지 재생, 등 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경남=류광현 기자 news24@

전북도, 추경예산안 2255억 편성

미세먼지 888억·민생 경제 1091억
17일 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

전북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255억원을 편성해 4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에는 지난 8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추경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미세먼지 안전투자 888억원, 일자리·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긴급한 민생경제 1091억원 등이 중점 반영됐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조7932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1억원(3.7%) 증가한 6조3054억원, 특별회계가 4억원 증가한 6189억원 규모다.

미세먼지 안전과 관련해 노후경유차 1만2000대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에 195억원을 지원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차 200대, 전주·익산·부안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에 136억원을 지원한다.

마스크·공기정화시설 지원사업과 산불방지, 화재예방, 급경사지 정비 등에도 추경을 편성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661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생활여건개선 등도 지원한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을 도의회 의결 즉시 신속히 집행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심의 등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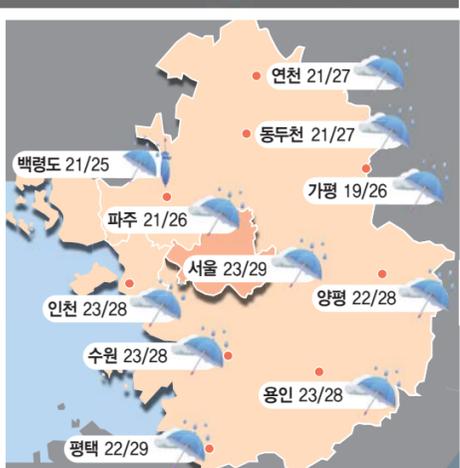
/전주(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9월 5일 (목)
음력: 8월 7일

수도권 날씨
29~2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GS25-경산시, 폐건전지 수거 손잡는다

GS리테일과 경산시청은 4일 경산시청 자원순환과에서 ‘폐건전지 수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GS리테일 경산지역 담당자와 김덕만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GS25는 경산시장의 지원을 받아 경산지역내 35개 점포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비치한 후,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분리배출 안내홍보물을 부착했다. 경산지역 고객들은 폐기가 어려웠던 건전지들을 가까운 GS25에 방문해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함으로써 폐기물 배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GS25가 수거함을 통해 모인 건전지들을 GS리테일 물류센터인 경산센터에 보관하면 경산시청은 수량에 따라



경산지역 GS25 매장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 /GS25

반기 1~2회 경산센터에 직접 방문해 폐건전지를 수거 후 재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산시장에서 수거한 폐건전지의 양은 총 1만 4200kg에 달하며, GS25는 올해 5kg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GS25는 폐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자원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무안공항서 입국자 면세초과 자진신고↑

무안공항 입국자들의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무안공항 입국자들의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는 2016년 50건, 2017년 8건, 2018년 156건에서 올해 들어 7월까지 308건으로 급증했다.

세관의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체 적발 건수는 2016년과 2017년 2건과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20건, 올해 들어 7월까지 70건이었다.

자진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무안공항 이용객들의 증가세와 맞물려 입국자들의 준법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세관은 분석했다.

미신고 물품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광주=차정준 기자